

경량화로 활동성 높인 공기호흡기 출시

산청 공기호흡기

최근 전국의 사업장에서 가스누출사고가 빈발하면서 근로자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보호구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유사시 유독가스의 흡입을 막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공기호흡기는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공기호흡기 생산 전문업체인 산청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기호흡기 SCA420을 선보였다. 각종 안전장치와 편의시설이 구비된 산청의 공기호흡기에 대해 알아보자.

용도별 다양한 실린더 볼륨

산청의 공기호흡기는 용도별로 다양한 실린더 크기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SCA420은 30분가량 사용이 가능한 경량화된 모델로 실린더 무게는 고작 3.2kg, 전체 중량도 7kg에 불과해 착용자가 신속하게 대응·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유독 물질이 발생한 화학사고에 처했다면 손가락을 닦는 급박한 상황인 만큼, 조금이라도 가벼운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SCA420은 최적의 장비라고 여겨진다.

부득이하게 유독가스에 오염된 지역



30분용 45분용 60분용



에 장시간 머물러야 한다면 긴 시간 호흡이 가능하도록 보다 큰 실린더를 장착하면 된다. 모델별로 살펴보면 SCA680은 45분, SCA790은 60분가량 사용이 가능한 장비다. SCA680과 SCA790은 각 무게가 9kg(실린더 3.6kg), 11kg(실린더 5kg)으로 가용한 작업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게는 그리 크게 늘지 않았다는 장점이 있다.

사용자 편의성을 강조한 개폐장치

SCA시리즈는 이외에도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FBO(First Breathing Operation)시스템이다. 이는 공기호흡기를 안면부에 착용한 이후 별도의 조작 없이 첫 호흡으로 밸브가 자동 개폐되도록 한 장치로, 사용자 편의성과 안전성 모두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칫 위급상황에서 당황한 나머지 장치를 오작동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다. 또 이 제품은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실린더 내의 공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대기호흡이 가능하고, 경보음 장치와 점등장치를 이용해 주변인들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양압조정기가 작동 중에 이상이 생길 경우 별도의 라인으로 실린더에 공기를 공급하는 By-Pass밸브장치와, 위급상황에서 피구조자의 호흡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마스크도 부착돼 있는 등 각종 환경에서 활용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산청의 한 관계자는 “화재현장이나 유독가스가 발생한 현장에서 공기호흡기는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장비다”라며 “앞으로 안전성을 더욱 높인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